



주인도네시아 대사에 박태성 전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MONTHLY KOFA

# 코파의

# 칭호

Tel. 021-30029090 E-mail : indokofa@gmail.com  
Add : Jl. Imam Bonjol No. 75, Panunggan Barat, Kec. Cibodas, Karawaci Tangerang 15139

Vol. **71**  
2020/08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 문대통령 “동포 생명·안전 보호해야...국가가 답할 차례”

## 재외동포와 코로나19 첫 화상 간담회...참석자들 “감사합니다”



▲ 재인도 영사·동포와 대화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재외동포와의 화상 간담회에서 송봉길 주인도대사, 재인도 은행원 손혁준씨와 대화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거주 국민의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외교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세계 각국 동포들과 첫 화상 간담회를 갖고 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한국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재외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고국에 큰 힘이 됐다”며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간 외교관”이라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답할 차례”라며 “국가는 우리 국민과 동포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 뒤 국경이 봉쇄된 상황에서 교민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0차례의 특별전세기 투입 등으로 117개국에서 4만명 이상 교민의 귀국을 지원했다.

문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재외 공관과 외교부 직원들의 노고

도 컸다”며 “특히 감사할 표하면서 자긍심과 소명의식

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각국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치안 상황이 악화하는 국가들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 동포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챙겨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의 안녕이 곧 대한민국의 안녕”이라며 코로나19 상황 지원을 위한 재외 동포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인도, 미국 뉴욕, 일본, 베트남, 태국 등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들과 화상으로 대화했다. 재외 동포들은 교민 안전을 위한 정부 대응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한국과 일본 등의 공조로 인도에서 귀국해 치료 중인 백혈병 어린이의 아버지 손혁준씨는 인도 현지 연결을 통해 딸의 근황을 소개하고 “이번 일을 겪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너무 자랑스럽다”며 “인도대사관이 적극행정의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도, 한

국, 일본의 삼각협력으로 무사히 따님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치료 경과가 좋다고 들었다. 다행스럽다”며 “대사관에서 교민들의 어려움을 잘 챙겨 달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강타한 미국 뉴욕의 상황을 들은 뒤 “정부가 걱정하는 것보다 교민들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이 더 클 것”이라며 “코로나 때문에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이에 대해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 재무부, 코로나19 경기부양책 세제혜택 적용 사업 분야 확대



인도네시아 재무부 세무국은 20일,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으로 내놓은 세제 혜택 대상 사업 분야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대 조치 기간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세제 우대 조치에 관한 재무 장관령 ‘2020년 제23호’의 두 번째 개정령 ‘2020년 제86호’가 16일자로 공표됐

다. 이에 따라 개인 소득세 원천세(PPh21)의 면제 대상 사업 분야가 1,189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수르요 우또모 세무 국장은 “거의 모든 업종에 적용한 셈이다”라고 강조했다.

수입 관세와 연간 선납한 법인세(PPh22) 면제는 721개 업종, 선불법인세(PPh25) 인하는 1,013개 업종, 부가가치세의 환급 신청 간소화는 716개 업종으로 각각 확대했다. 수르요 세무국장은 “특히 임업, 도매, 소매, 음료, 해운, 청과 가공, 금융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 김창범 대사, 17일 한국으로 귀임

주인도네시아 김창범 대사는 2018년 2월에 부임해 2020년 7월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근무를 마치고 17일 한국으로 귀임한다.

김 대사는 인도네시아에서 2년 반의 재임 동안 “조코위 대통령의 두 차례의 한국방문과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함께 응원했던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 또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IK-CEPA)의 최종 타결되고 발리 분관이 신설된 것은 기쁜 일”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지진과 홍수, 테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발생, 간혹 일어난 한인들의 사고 소식까지 가슴 졸이는 순간’을 떠올리며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는 와중에 귀임하게 된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대사는 현장에 직접 찾아다니며 한인들과 더 가까이 하고자 계획했던 ‘현장의 달인’이 코로나 사태로 무마된 것에 아쉬움을 느끼며 후임 대사가 더 좋은 기획으로 이루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



▲ 주인도네시아 김창범 대사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Aditya)

기도 했다.

김창범 대사는 귀임 후 계획에 대해 ‘친구와 함께 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한다. 한국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구상하고 있으며, 기회가 되는대로 한국에 인도네시아를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범 대사 후임으로 박대성 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임명됐으며, 이달 말 경 부임할 예정이다.

**HKI** PT.HANJIN KONSTRUKSI INDONESIA  
**HUJ** PT.HANJIN INDONESIA JAYA

#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Jl. Modern Industry III/4 Kawasan Industry Modern Cikande RT 000, RW 000 Desa / Kel. Nambo Ilik Kec. Kibin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

## 인도네시아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 계속...누적 10만명 넘어

정부TF “언제 정점일지 몰라” ...  
조코위 “8개 주에 대응 집중”



인도네시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7일 1천525명 추가돼 누적 10만303명을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57명 늘어나 누적 4천838명으로 집계됐다. 인도네시아 보건부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147일만 이날 10만명을 넘어섰다.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인도네시아의 확진자 수가 가장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라크(11만명), 카타르(10만9천명)에 이어 24번째로 많다. 인도네시아의 인구수는 2억7천만명으로 세계 4위다. 인도네시아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하루 목표치를 6월부터 2만개로 늘린 뒤 6월 23일부터 계속 1천명대를 기록했다. 누적 확진자 수는 ▲ 4월 30일 1만명 ▲ 5월 21일 2만명 ▲ 6월 6일 3만명 ▲ 6월 16일 4만명 ▲ 6월 25일 5만명 ▲ 7월 3일 6만명 ▲ 7월 9일 7만명 ▲ 7월 15일 8만명 ▲ 7월 22일 9만명에 이어 이날 10만명을 넘었다. 7월 들어서만 확진자가 4만3

천여명 늘었지만, 도니 모나르도 코로나19 테스트포스 위원장은 이날 국무조정실 유튜브 채널로 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가 언제 코로나19 (증가세) 정점에 도달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앞서 “6월에 확진자 증가세를 꺾고, 7월에 정상적인 삶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가 최근에는 “8~9월에 정점을 찍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코로나19 관련 회의에서 “자카르타와 서부자바, 중부자바, 동부자바, 북수마트라, 남술라웨시, 남칼리만탄, 파푸아 등 8개주에 대응 능력을 우선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전체 감염자의 78%가 이들 8개주에 분포해 있다”며 “사망률은 최대한 낮추고, 치료율은 최대한 높이는 한편 신규 확진자 증가세를 신속히 조절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조코위 대통령 “자카르타 등 8개주에 코로나19 대응력 우선 집중”

[인도네시아 대통령궁 제공]

## 박태성 신임대사 인사말

제19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박태성입니다. 먼저, 코로나 19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대한민국은인도네시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수한 한국의 방역 모델을 적극 활용하여 보건 안전 분야의 영사 조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6천만 명의 세계 4번째 인구 대국이자, 국민의 평균 나이가 29.9세인 젊은 나라로서 역동적인 성장과 발전이 기대되는 나라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인구, 면적, GDP에 측면에서 아세안(ASEAN) 10개국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 아세안의 주요 국가입니다. 동남아 지역의 유일한 G20 국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판차실라(Pancasila)의 정신으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하나로 단결하여 함께 전진하고 있는 ‘적도의 진주’와 같은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국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국민 방문하면서 양국 관계를 동남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고, ‘한-인도네시아 공동 번영의 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8년 9월 한국을 답방한데 이어, 2019년 G20 정상회의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도 한-인니 정상은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정상간의 우의와 신뢰를 크게 다진 바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 협상이 타결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비준되면, 양국은 단순한 무역투자 확대를 뛰어 넘어 G20 국가간의 전략적 경제동반자 관계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이차전지, 석유화학 등 첨단 부품소재, 방산 및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제휴와 협력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공유경제, 스마트 기술 등 디지털 전환 및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의 미래 협력에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 입니다. 과학기술과 스타트업 분야의 투자와 제휴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것 입니다. 특히 현지에 진출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는 공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확충, 인적자원개발, 행정수도 이전 등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협력과 참여에도 적극 나설 것 입니다. 아울러, 음악, 드라마, 콘텐츠, 문화, 스포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협력 기틀도 공고하게 다져 나갈 것 입니다. 무역투자 중심의 협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양국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분야에서의 공공외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동포사회와 현지 진출기업들이 공공외교의 동반자가 되도록 대사관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과 활발히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국 관계발전의 근간은 상호 신뢰와 상생발전입니다. 1973년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한 이후 지난 반세기 가까운 기간 동안에 거둔 양국 협력의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 상호 신뢰와 상생에 바탕을 둔 새로운 50년을 향한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우리의 신남방정책의 비전인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이 곳 인도네시아에서 실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과 함께 연대하고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양국 정상간에 구축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고위급의 소통과 교류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양국 청년들이 서로 친구가 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9년 기준 약 28만 명의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약 39만 명의 한국인이 인도네시아를 찾았습니다. 다양한 인적 교류시업을 확대하여 양국 국민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이 한-인니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포사회와 현지 진출기업들과 함께 하는 공관, 늘 현장과 함께 하는 공관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민 100년의 역사를 지닌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사회는 글로벌 한인 커뮤니티의 모범이고 자랑입니다. 안정되고 단결된 한인 사회는 한국-인도네시아 우호협력의 교이자 우리 기업활동의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대사관은 우리 동포 사회의 보호와 지위 향상, 그리고 영사조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인도네시아 양국이 상생발전, 공동 번영의 선린우호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기업인, 그리고 재외동포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 박태성

2021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SILK ROAD**

## 2021년(辛丑年)에는 우리가족, 동호회 카렌다를 만들어 보세요!



2021

가족 카렌다, 동호회 카렌다 제작은...

1. 가족사진 및 기념일을 넣어 제작해 드립니다.
2. 각 동호회 및 소그룹 카렌다를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3. 단 1권부터 제작이 가능하므로 제작비의 부담이 없습니다.
4. 제작전 사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 의뢰 : 0858 9060 0962,  
021 3002 9090 / 91  
pt.kwanggaeto@gmail.com

## 세계은행 “일자리창출 옴니버스 법안, 환경·노동자 보호문제 악화 우려”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심의 중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법안에 대해 환경과 노동권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은행이 우려를 표명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옴니버스법안은 노동·광업규제로부터 사업허가 및 환경법까지 79개 현행법과 1,200개 이상의 조문을 개정하고 관료주의를 벗어나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세계은행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사무소의 사무 소장은 16일 열린 인도네시아 경

제 전망보고에 관한 회의에서 이 법안이 환경분야와 노동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옴니버스 법안은 환경허가 절차로 인한 투자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및 건설허가 조건을 완화한다. 사무 소장은 “환경보호법 규제 완화는 자연자산을 통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옴니버스 법안의 노동법 개정 부분에 대한 세계은행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실업률이 급상승하고 있는 현재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소홀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 소장은 “실업 대책, 급여 제도, 퇴직금 등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항 운영사 AP1, 발리와 롬복 등 9개 공항에서 코로나19 신속진단검사 실시

인도네시아 국영 공항 운영사 앙카사뿌라1(PT Angkasa Pura1, AP1)은 23일 서부 누사틍가라주 롬복 국제공항에서 22일부터 코로나19 신속진단검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발리의 응우라이 공항 등 9개 공항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롬복 공항의 검사 장소는 공항 서쪽 주차장이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오후 4시이다. 항공 승객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검사 비용은 15만 루피아로 약 20분 안에 결과



를 알 수 있다. AP1의 홍보 관계자에 따르면, 운영하는 15개 공항 중 검사가 가능한 공항은 롬복 공항, 응우라이 공항 외에도 남부 술라웨시 마까사르의 하사 누딘 공항, 족자카르타특별주 꼴론쁘로고 공항, 중부자바주 스마랑 아마드 야니 공항 등 9개소이다. 검사 비용은 모두 15만 루피아이다.

##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 스마트로 가는 중소기업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종사자의 87.9%가 일하고 있다(2014년 기준). 중소기업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장·발전하는 단계에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기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경영·판로·기술개발 및 동반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은 기업의 수와 종업원 수가 줄어들었지만 종업원 1인당 인건비는 대기업의 60% 정도라고 하니 안타깝지만 하다. 사람들은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이지만 정작 중소기업에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는다. 공작기계 몇 대로 가공을 하고 조립을 하며 납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의 2차 또는 3차 벤더(vendor)가 대부분이다. 종업원 50명이 안 되는 곳이 수도룩 하다. 생산이나 재고의 관리는 주로 엑셀로 하고 있고 즉각적인 분석이나 계획 수립은 꿈도 꾸기 어렵다. 그러나 연구개발은 그림의 떡이다. 이런 중소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ICT(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해 최소의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중심의 첨단 지능형 공장이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구축하여 우리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이끌겠다고 한다. 중소기업은 80년대에는 원가절감에, 90년대에는 품질관리에 매진하였고 2000년대에 들면서 정보화의 물결을 탔다. 제조업은 생산시점(POP; Point of Production)관리에 역점을 두었다. POP 관리는 컴퓨터로 제조장비에 작업지시를 내리거나 제조관련 정보를 받아 관리하는 것이다. 공작기계는 상당히 지능적이다. 수치제어(NC; Numeric Control)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더 발전하여 머시닝센터(MCT)라는,

스스로 알아서 드릴까지 갈아 끼며 가공하는 장비로 발전을 했다. 이들 장비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라는 프로그램 된 컴퓨터가 들어 있어서 통신망으로 연결되면 사무실의 컴퓨터에서 도면과 작업지시를 받아 움직이고 작업결과를 컴퓨터로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는 즉각적으로 생산과 불량정보를 받고 장비별로 가공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물론 재고 관리도 된다. 조립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 작업자가 조립을 끝내고 검사를 하고는 현장에서 그 결과를 입력 가능하다. 바코드를 스캔하거나 스크린을 터치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업이 작업자를 힘들게 해서 안 되고 가능하면 저절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그 동안 3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제조현장의 기계 설비에 컴퓨터와 통신 기술을 적용해 공장의 자동화를 추구하고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통합 생산관리시스템)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무와 관리의 효율을 높이며 애써 왔다. 이리하여 생산성 증가, 불량 감소, 원가 절감, 납기단축 등이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고 로봇을 도입하거나 하여 지능적인 공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MES는 제품주문을 받아 제조의 착수에서 완성품의 품질 검사까지 전 생산활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생산 현장의 각종 정보, 즉 생산실적, 작업자활동, 설비가동, 제품 품질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집계·분석·모니터링·제어함으로써 고품질의 수익 지향적 생산체제를 갖추게 하는 통합 생산관리시스템이다. ERP 등과 연동하여 생산계획단계부터 작업지시, 공정관리, 생산실적 등록 등을 관리단위 별로 처리하고 생산 이력관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더하여 외주 관리를 포함하는 물류관리(SCM;



조기조

Supply Chain Management)도 가능하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란 정보 기술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정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스마트공장이 되도록 도우면 스마트공장 기초 시스템의 도입에 1억, 고도화에 1.5억 원까지 정부가 무상 지원하고 기업이 대응자금을 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밑바닥 사정을 잘 알게 되었다. 마른 수건을 짜듯 어렵다. 요즘은 컴퓨터와 저장장치, 통신망 등이 발달하여 가격이 많이 내렸고 제 3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부담스럽지 않다. 앞으로 3년 내에 약 3만개의 중소기업을 스마트공장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 하니, 그래야 기업이 살고 경쟁력이 있다. 일자리가 많다. 반드시 안전하고 쾌적한 일자리라야 한다.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따라서 월급이 오르면 신바람이 나겠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조기조(曹基祚 Kyoj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 BS 476 Fire Test “CLASS 0”

## 인도네시아 최초 획득...

**건축 자재 (Build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Duct / Pipe / Roof Insulation(보온 단열재)**

**가방 제조업체 부자재 공급 및 가공 (Bag Materials)**



**자동차 내장재(전자선 가교 폼): Door Trim, Sun Visor, Headliner 등 스포츠&레저(실내 및 야외매트, 구멍조끼, 수영보드, 헬멧 및 장갑, 신발 Insole)**

**두께 : 2mm ~ 50mm , Density : 25kg/m3 ~ 200kg/m3**

본 사 : Jl. Raya Serang KM., 16, 8 Desa Telaga Cikupa, Tangerang 15710 Indonesia  
T E L : (021) 5940 4086, 5940 4087 FAX : (021) 5940 4084  
한국인 직통 : 0815 1902 0499(제현영부장) E-Mail : yjeh@toilon.co.id / yjeh@toilonindo.com Website : www.toilon.co.id



## 경기회복 위해 외국인에게 부동산 규제 풀기로 “8월 말까지 규제 정비해 실질적으로 내국인과 같은 권리”



인도네시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경기 회복을 위해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쉬워지도록 규제를 풀기로 정했다. 24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소피안 잘릴(Sofyan Djalil) 인도네시아 농업·공간계획부 장관은 “8월 말까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관련 규제를 정비해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인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의회의 요구사항이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8월 말까지 시한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소피안 장관은 전날 리뽀그룹, 시나르마스 그룹, 아궁스다유그룹 대표 등 부동산 재벌들이 참석한 화상 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허락하지 않다가 2015년부터 아파트만 사용권 형태로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주택 등 임대차 계약은 30년까지 가능하고, 이후 20년 연장, 50년이 됐을 때 다시 30년 연장이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 반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외국인의 임대차 계약이 한 번에 90년 이상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동산 규제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출 등에 어려움을 겪어 인도네시아 부동산 투자를 꺼린다고 보고 융통성 없는 조항들을 손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국인에게 주택 소유권도 줄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 투자조정청, 143개 해외기업 중국에서 인니로 투자 이전 가능성 시사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미국과 대만, 한국, 일본, 홍콩 등 총 143개사가 투자처를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총액 792억 4,000만 달러 투자와 30만 4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현지 언론 인베스톨 데일리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BKPM 알마 카르마 국장(투자 홍보 개발 부문)은 “143개 국가·지역별 내역은 미국이 57개사, 대만 39개사, 한국 25개사, 일본이 21개, 홍콩이 1개사이다”라고 말하며 “이 가운데 7개사는 이전하기로 거의 확정, 17개사는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이 밖에 119개사도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각각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전망은 7개사가 8억 5,000만 달러와 3만명, 17개사가 370억 달러와 11만 2,000명, 119개 기업이 413억 9,000만 달러와 16만 2,000명이다. BKPM의 유리웃 국장은 “인도네시아에서의 투자 재개를 밀어주기 위하여 4월 24일~7월 17일 동안 457개 2,603명의 외국인 전문가를 초빙했다. 이 중 155개사는 투자를 고려중인 기업이다”라고 말했다. 457개사에 대한 투자 전망액은 총 859조 7,000억 루피아로 총 23만 7,269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한국 점유율 1위!

#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TANGERANG** Ruko Tatac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 코로나19 대책 새조직으로 일원화 ... 경제와 감염 예방을 통합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타격을 받은 국내 경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가능하고 있던 코로나19 긴급 대책본부(태스크 포스)와 경제 회복 대책 본부를, 경제조정부 장관을 장으로 하는 새로운 위원회 아래에 총괄하고 감염 예방과 경제 회복을 동시 병행하여 진행한다. 조코위 대통령이 20일 서명한 대통령령 '2020년 제82

호'에 따르면, 새롭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국가 경제 회복위원회'를 대통령 아래 설립한다. 위원회의 과제는 경제 회복과 변화에 대한 전략적 정책의 실시를 관리하고 경제계가 직면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실행한다. 재난방지청(BNPB) 소관의 태스크포스와 코로나19 관련 국가경제회복(PEN<sub>1</sub>Pemulihan Ekonomi Nasional) 프로그램을 감독하



는 국가 경제 회복 대책 본부를 새로운 위원회 아래에 둔다. 또한 각료로 구성된 정책 위원회도 설치하고 위원장은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이 맡는다.

또한 위원회와 이들 두 대책본부의 조정역을 맡을 실행 위원장에는 에릭 토히르(Erick Thohir) 국영기업부 장관이 취임한다. TF 본부장은 BNPB의 드니 청장이 유임되며 국가 경제 회복 대책 본부

의 본부장에는 국영기업부 부디 차관이 취임한다. 국가 경제 회복 대책 본부는 경제 정책 외에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도 주도한다. 21일 비즈니스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Sri Mulyani Indrawati) 재무부 장관은 이번 새로운 위원회 설립에 대해 "지금까지 의료 부문의 대책 본부 밖에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앞으로 경제와 의료의 쌍방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는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 회복은 약하다. 또한 코로나19의 제2파가 도래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에릭 장관은 "향후 1주일 내에 새로 편성한 경제 회복 대책 본부가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회복 정책을 정리하여 차주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서출판/인쇄  
**광개토**  
PRINTING COMPANY

**상상 그 이상의 속도와 퀄리티!  
디지털 프린트 서비스  
시작합니다!**

- 명함 : 컴플 후 익일배송
- 카다록, 브로슈어외 : 1권부터 가능
- 다양한 재질의 인쇄 가능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명함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제작 문의**  
021-3002-9087  
0858-9060-0962  
pt.kwanggaeto@gmail.com  
khong3000@gmail.com

## 인도네시아 마나도서 한국인 남성 코로나 감염... 누적 3명째

한국투자증권 자카르타 사무실서 현지인 직원 3명도 감염

인도네시아 북술라웨시 마나도의 한국인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보르네오섬 동갈리만반의 정유공장 건설 현장 한국인 근로자 두 명에 이어 세 번째다. 27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마나도에 거주하는 44세 한국인 남성 A씨가 전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폐렴 증세를 보여 병원에 격리됐으며,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 관계자는 "A씨는 6개월 동안 마나도를 벗어난 적이 없고 최근에 다른 한국인을 접촉한 적도 없다"며 "아내와 아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의 한국투자증권 소속 인도네시아인 직원 세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

원 등도 검사를 받고 있다. 앞서 보르네오섬 인도네시아령 동갈리만반 발릭빠빤의 '정유공장 고도화 프로젝트'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A(44)씨가 지난달 28일 발릭빠빤 175번 환자(BPN 175)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달 1일 한국인 B(60)씨가 190번 환자(BPN 190)로 발표됐다. 두 사람 모두 현대엔지니어링 소속으로, 현지인 직원들과 접촉으로 감염됐으며 무증상 환자라서 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를 짧게 받고 퇴원했다. 이와 별개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귀국한 직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도 잇따랐다. 지난 2일 자카르타발 인천행 여객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해 각각 통영과 부산으로 이동한 인도네시아인 선원 두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8일 입국해 서울 신촌에 도착한 인도네시아인 대학원 유학생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도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점착

1. 35mm Trimd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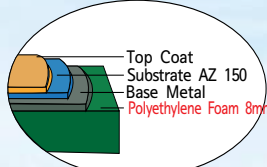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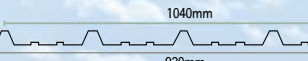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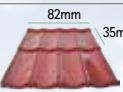
2. 25mm Trimdek

3. 35mm Spandek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5. Boltless-Seaming Type 55mm

6. Genteng Metal (기와)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점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 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20년 전통과 신용의 업체

**업무 내역:**

1. 현지 법인 설립(PMA, PMDN, 연락사무소)
2. 투자청, 온라인 허가(OSS, NIB-APIU, P)
3. 이타스(ITAS) 및 은퇴비자(LANSIA VISA)
4. 부동산(주택, 사무실, 공장, 건물 등)
5. 무역업무대행(제품, 원부자재소싱 등)

**이메일 : ptgcc@hanmail.net 카카오톡 ID: kitas**  
**Tel : 021-5577-6454, 021-551-4891**  
**위치 : 명그랑 리포 까라와치 루포 피남시아내**  
**신축상가 엑셀리스 NO.18 (명가식당앞 상가)**

# 이제는 'K-통상' ... 정부, 개발도상국과 신개념 FTA 추진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장개방과 개발 협력을 연계한 신개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한다.

필수기업인들의 국경 간 이동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상시기구인 '기업인 이동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한 호텔에서 경제단체와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통상산업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신 통상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세계 통상질서 변화를 ▲ 탈세계화(Deglobalization) ▲ 디지털전환(Digitalization) ▲ 공급망 재편(Decoupling) 등 '3D'로 제시했다.

코로나19 이후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면서 보호무역은 강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중심 다자체제는 약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디지털 통상은 확대돼 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리쇼어링(해외생산기지의 자국 복귀) 등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에 발표한 이른바 'K-통상전략'은 이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대와 협력의 통상질서를 만들어나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교역과 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필수 기업인에게 입국 특례를 제도화하는 '신속통로'를 현재 중국에서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필수 기업인의 해외 출국과 국내 입국 관련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지원해주는 '기업

## 개발협력과 시장개방 연계한 새로운 모델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 · 민관합동 신보호무역대응반 설치 정부 · 재계 · 경제단체, '포스트 코로나 신 통상전략' 논의



▲ 보호무역주의(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도 무역협회 내 설치하기로 했다. 8월에 발족할 이 센터는 산업부와 무역협회, 대한상의, 코트라 직원 등으로 구성되며 건강 상태 확인서 및 격리면제서 발급 지원, 전세기 운항 협조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중국·일본 3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다자차원에서 '팬데믹 프리 패스포트' 제도 도입도 논의할 예

정이다.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필수기업인의 이동과 물류·통관을 원활히 하고 무역·투자제한 조치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신개념 'K-FTA'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FTA가 상품양허(개방)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개발협력과 우리 관심 분야 시장 개방을 연계한 새로운 모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남은 잠재적인 FTA 체결 국가는 개도국인데, 기존 방식대로 하면 협상 목표나 관심 분야 등에서 이해 상충이 발생한다. 예컨대, 개도국의 주요 수출품은 농산물인데, 한국은 농산물을 보호하려고 한다"면서 "기존의 시장 접근 방식을 넘어 경제파트너로 접근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즉 우리의 산업발전 경험을 전수하거나 산업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이와 연계해 시장 접근 개선과 비관세 장벽 철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인 '통상협력촉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싱가포르에 이어 아태 지역 중견국들과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DPA)을 체결하는 등 디지털 경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에선 '디지털 통상 대응

반'을 만들어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한 규제 개선 등에 나선다.

아울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내 타결, 필리핀·캄보디아 FTA 협상 진전 등 신남방·신북방 FTA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보호주의의 파고를 넘기 위해 민관합동 '신보호무역 대응반'을 만들고 통상 분석·대응 포털인 'KOTRAS'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신통상전략을 최종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포럼에는 삼성전자 진교영 사장, 기아자동차 송호성 사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 등 주요 수출기업과 경제단체장, 통상전문가 등 22명이 참석했다.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은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가 기존의 무역 규제조치를 넘어 환경과 노동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민관이 협력과 소통해 우리 산업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한-캄보디아 FTA 협상개시...의류 · 신발 원재료 수출 기대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한다.

아세안의 생산·무역 허브로 성장가능성이 큰 캄보디아의 시장을 열면 의류·신발 원재료, 화물자동차, 음료 등 수출이 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째 소라삭(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은 9일 오후 3시 화상회의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지난해 11월 25일 부산 조선호텔에서 째 소라삭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과 한-캄보디아 FTA 공동연구 개시 공식 선언문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남방 국가들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

운데 아세안의 생산·무역 허브로 성장가능성이 큰 캄보디아와 FTA 협상을 개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양국이 연내 성과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간 교역은 지난해 기준 10억3000만달러에 달한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의 58위 수출대상국이고, 67위 수입대상국이다.

우리나라는 주로 의류, 신발 원재료와 화물자동차, 음료 등을 수출하고 있고, 캄보

디아로부터 의류, 신발제품 등을 수입한다.

투자의 경우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에 직접투자한 금액은 2019년 기준 17억4000만달러(누적)다.

양국은 지난해 3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자 FTA 추진에 합의했고, 이후 정부간 실무협약과 FTA 공동연구 등을 진행했고,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협상개시를 위한 절차를 완료했다.

한-캄보디아 FTA 협상이 개시됨에 따라 양국은 7월중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한다.

<이데일리>

**KOREAN MODERN GOLF & COUNTRY CLUB PROMO 2019**

주중	IDR 575.000	Include Cart
토요일 오후	IDR 1.700.000	Include Cart
	IDR 1.460.000	Walking
일요일 오후	IDR 1.500.000	Include Cart
	IDR 1.260.000	Walking

\*Valid for Korean only.  
\*Valid until 31 December 2019.  
\*Player must show passport or KIMS/KITAS upon registration.  
\*Terms & conditions applied

**BUY 1 PITCHER GET 1 FREE PITCHER**

**BUY 3 GLASSES GET 2 FREE GLASSES**

**WEEKDAYS PROMOS!**

**BUY 4 PAY 3 ITEM FOOD**

\*Price is subject to 21% of government tax & service charge  
\*All promo Valid on Weekdays only  
\*Terms & conditions applied

For further information & registration please contact **+6221 552 9228**

marketing@moderngolf.co.id    www.moderngolf.co.id

Modern Golf & Country Club    moderngolf\_countryclub

저번 기사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현재 국내 신발관련 업체의 상황을 신발완제 생산 업체와 자재업체로 나누어서 해당업체의 대표 또는 임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대부분의 업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금상황이나 오더상황이 나은 몇몇 업체도



신세탁 레더 참고용 자료사진 (본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신세탁 레더 참고용 자료사진 (본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있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많은 기업들이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편집자 주)

**1. 완제 신발업체**

(A사) 기능성 신발을 생산 하는 국내의 한 업체는 본지와 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 하면서, 조금씩 나아질 것 같아 희망적이었다가 또다시 이태원의 클럽으로부터 재 확산 때문에 또다시 주춤 해 지며 어려움이 지속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기능성 신발의 특성상 가정의 달인 5월이 가장 매출이 좋은 달인데,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로부터 일부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되어 가뭄에 단비 같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름철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가올 시기를 넘겨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 한다.

현재 직원들은 3개월째 휴무 중에 있으며,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

하기 때문에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에는 구청이나 시에서 그리고 백화점 등에서 판매 행사를 통하여 매출을 올리기도 하였는데 지금은 그러한 일들이 전혀 없으므로 여러 면에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앞으로의 추이를 보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어려움을 잘 이겨내기를 기원 드린다고 하며 마무리 하였다.

(B사) 최근 몇 년간 매출이 급상승한 OEM 신발 생산 업체 중 한 업체의 대표도 본지와 의 인터뷰를 하였는데, 여기 도 당면한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어려운 것은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하야 말을 이어 갔다.

이 업체에서 납품하는 바이어 측의 오더는 20~30%정도 감소 하긴 하였지만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 다행스러운 정도라고 한다. 다른 여러 업체들의 직원들은 유.무급 휴직을 하는 업체가 많은데 여기 는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워도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고 한다. 지금은 어렵지만 이 시기를 넘기고 나면 또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 하며

묵묵히 버티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걱정인 것은 독점 공금을 받고 있는 협력업체라고 하며 안타까움을 토로 하며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마무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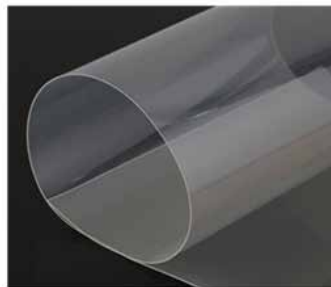
(C사) 해외에 진출 중인 한국 완제 공장 중 몇몇 업체는 적면적으로 또는 일부 문을 닫거나 축소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생산일수도 줄이고 직원들 급여도 줄여가고 있다고 한다.

(D사) 국내 내수를 하는 일부 신발 완제업체들은 조금씩 회복세를 나타내며 안정을 찾아

단축 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구조조정을 계획 하고 있는 업체가 많다고 한다.

**2. 신발 자재 및 기타 관련 업체 텍스타일 업체**

현재 메이저 브랜드를 포함한 운동화 갑피에 많은 볼륨을 차지하고 있는 텍스타일은 다른 어떤 자재보다도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기존 오더 대비 60~70%까지 떨어진 업체들도 있으며, 특히 텍스타일 산업의 특성상 다른 자재에 비해서 많은 인력이 종사하고 있어서 인건비를 감당해 내기가 어렵다



TPU 필름 & Reflective 자재 참고용 자료사진 (본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텍스타일 & 염색 공장 참고용 자료사진 (본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가는 업체도 있다고 한다. 반면에 중소형 내수공장 중 몇 군데는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업체들은 4월달까지 기업대출로 겨우 버티다가,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문을 닫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E사) 메이저 브랜드를 생산 하는 대형 공장들은 오더가 많이 감소함에 따라 대부분 직원들의 근무일수 축소 또는

고 한다. 또한, 구정 이전에 생산 하여 선적인 자재로 신발 생산을 하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지 않게 되자 이후에는 오더가 거의 없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이 어려움의 주요 요인이다.

많은 텍스타일 업체가 4월부터 단축 근무에 들어갔으며, 일부 텍스타일 업체는 구조조정에 들어간 곳도 있다고 한다.

**신세탁 업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신세탁 레더 제조업체는 코로나 19로 인한 타격이 다른 업체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나이키, 아디다스 등과 같은 메이저 브랜드의 벤더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세탁 업체 역시 마찬가지로 50~60% 가량 오더가 줄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어떤 업체는 100명이 넘게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여 명예퇴직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TPU 필름 및 핫멜트 등 화공 업체 그리고 부자재업체 어느 업체가 더 힘들고, 어느 업체가 덜 힘들고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힘든 상황이라 한다. 나이키, 아디다스 등 메이저 브랜드와의 거래가 주를 이루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들 브랜드들의 오더가 줄어든

만큼 많은 타격이 있다고 한다. 5월이 지나면 조금 나아질 거라고 관망 하고 있지만 누구도 쉬게 낙관할 수 없는 만큼 코로나의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한다. 여하튼 이에 관련된 기업들 중 자금이 여유가 있는 업체는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상태가 지속 된다면 버틸 수 있는 업체는 많지 않을거라 한다.

어떤 업체는 6월달까지 현장은 잠정적으로 생산을 중단하고 경영진들만 출근 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며 상황을 보고 더 악화가 되거나 이 상태가 지속 된다면 구조 조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하였다.

한편, 반사 (Reflective) 자재를 생산하는 한 업체의 영업 책임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4~5월의 매출을 주춤 하여 일부 휴무를 하고 있지만 6월 부터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고 한다. 왜냐 하면 나이키 오더가 현재 55%정도인데 75%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며, 현재까지는 구조조정 계획이 없다고 한다.

**3. 요약과 전망**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생활과 상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 되고 외출이나 여행이 줄어들고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의 패턴이 달라지면서 산업이 급속도로 변화하여 재편성 되어 가고 있다.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지금 그리고 종식 후 우리가 종사 하고 있는 신발과 패션산업은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 그리고 유통 산업은 어떻게 재편성 될 것인가? 무척 궁급해진다.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찾아서 방향을 잡아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어감에 따라 국내외 모든 신발관련 업체는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가고 있다. 편집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원 하고 있다.

P.S: 상기의 글 중 필자의 여러 지인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들은 개인의 주장이나 의견이 다소 있을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 정보가 있으신 독자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정길모 (지엠글로벌비즈 대표, 코로나19관련 주요기사 링크 <해의뉴스>)

**써모비 있는곳은 안전지대!!**

**ThermoB from TRUWIN KOREA**

**±0.3° 내의 정밀기술**

**절대온도측정용 열화상 카메라**

병원 & 보건소

관공서 & 은행

카페 & 식당

공장 & 일반회사

**NNFC(나노종합기술원)와 공동개발 완료**

**CMOS전용 공정의 최고 기술력 확보**

**TRUWIN (주)투루윈**

[www.truwin.co.kr](http://www.truwin.co.kr)

**자동알람기능**

이상 체온 감지시 자동 알람으로 경고 제품 설치 후 관리 인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초고속 프레임으로 최상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정확성**

±0.3°내의 정밀한 적외선 열감지 센서

**신속성**

감지후 0.3초의 빠른 자동알람 기능

**경제성**

저렴한 가격 지속적 무상 업그레이드

인도네시아 공식 판매처 : PSS Network

연락처 : 0812 1105 2510 / oktokorea@gmail.com





▲ [편안함과 스타일 모두 잡은 스니커즈 물. 어떤 디자인 신을까?]

운동화의 편안한 착화감과 물의 세련되면서 캐주얼한 매력을 모두 갖춘 ‘스니커즈 물’이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Mule)은 앞은 막혀있고 뒤축이 없는 형태의 신발이다. 스니커즈 물은 운동화의 뒤축을 잘라낸 형태로 일반 물보다 편하게 착용할 수 있다. 일반 운동화보다 통풍성이 좋아 여름철 신기 좋다.

◇청바지에 딱!...데일리부터 비즈니스 캐주얼룩까지

앞부분이 막혀 있어 데일리룩은 물론 비즈니스 캐주얼룩까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에게 환영받고 있다.

가수 현아는 컬러풀한 니트 베스트와 청바지 차림에 흰색 스니커즈 물을 신었다.

발목이 시원하게 드러나 종아리가 더욱 길어 보인다.

그림 에이프릴의 나은은 흰색 크롭탑과 세미 플레어 진에 회베이지 색상의 컨버스물을 착용했다.

전체적으로 밝고 화사한 룩을 완성했다.

차정원은 발목이 드러나는 길이의 크롭진에 빨간색 스니커즈 물을 신었다.

그는 재킷과 핸드백을 매치해 오피스룩으로도 손색없는 캐주얼 룩을 연출했다.

◇와이드 팬츠도 편안한 감성으로

앞은 운동화, 뒤는 슬리퍼...현아 · 효정 신은 ‘스니커즈 물’ 뜬다

스니커즈 물은 마치 스니커즈의 뒤축을 뺀 것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풍긴다.

면 슬랙스나 와이드팬츠에 매치하면 특유의 모던한 느낌을 캐주얼하게 변신시킬 수 있다.

효정은 보라색 티셔츠 차림에 일자 면바지와 스니커즈 물을 매치했다.

효정은 앞머리를 내린 포니테일에 헤어슈슈를 매치해 90년대 무드를 풍겼다.

그림 레드벨벳의 예리는 루즈핏의 흰색 티셔츠에 검정 와이드팬츠를 입었다.

여기에 그는 검정색 스니커즈 물을 신고 편안한 원마일웨어를 완성했다.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가 내놓은 ‘스니커즈 물’

최근 트렌드에 맞춰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여름 시즌 주력 아이템으로 스니커즈 물을 선보이고 있다.



기본에 충실한 베이직 라인부터 눈에 띄는 색상과 디자인으로 개성을 살린 스타일까지 취향에 따라 다양한 스니커즈 물을 선택할 수 있다.

F&F가 전개하는 MLB의 ‘플레이볼 물’ (PLAYBALL MULE)은 현아가 착용하면서 ‘현아 물’이라는 닉네임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야구공의 굽은 스티치를 모티브로 한 슬 장식의 3cm 키높이 솔로 스커트는 물론 와이드 팬츠 등과 매치하기 좋다. 반스는 물 구조로 재해석한 클래식 풋웨어 컬렉션을 출시했다.



슬립-온 물’과 기존 스니커즈보다 뒤축을 50% 이상 낮게 디자인한 ‘올드스쿨 물’로 구성해 활동성을 높였다.

수페르가컨버스의 ‘적테일러 올스타 데인티 물’은 클래식한 스니커즈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이다.

블랙, 화이트는 물론 시즈널 컬러로 매더 핑크, 선플라워 등 개성있는 컬러로 출시했다.

수페르가는 3cm 높이의 플랫폼 굽이 있는 ‘2397 물 스니커즈’를 선보인 바 있다.

기존 ‘수페르가 2397’의 다른 버전이다.

앞코가 둥근 스타일로 스커트와 궁합이 좋다. 머니투데이

‘맨발 신발’ 레구아노 한국 상륙..최고 디자인 · 기술력

독일 내추럴 워킹화 ‘레구아노 (Leguano)’가 한국에 본격 상륙했다.

레구아노 신발은 맨발로 걷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을 줘 일명 ‘맨발 신발’로 불린다.

레구아노코리아에 따르면 독일 레구아노 본사는 2009년 설립됐으며, 2013년 최초로 독일에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했다.

108개 전용매장, 1000곳여의 신발 판매장이 있다.

특히 해외 17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연간 50만 켤의 신발을 생산한다.

레구아노 신발은 내추럴워킹을 꿈꾸던 마라토너 ‘Helmuth Ohlhoff’에 의해 5년 연구 끝에



발 끝에 독일의 기술력으로 탄생된 핸드메이드(Handmade) 제품이다.

특히 운동선수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급성장 중이다.

실제 지난 4년간(2016~2019년) 독일 신발 산업의 평균 성장률이 2.5%에 불과한 상황에서 레구아노 신발(Barefoot Shoes)은 평균 성장률은 무려 16배인 40%에 이른다.

이 같은 성공 비결은 독창적인 디자인과 건강을 위한 최고의 품질로 분석된다.

레구아노 신발의 특성을 살펴보면 바닥에 유연성이 있고, 굽이 없이 평평하다.

이에 발 근육을 움직여 근골격계를 강화시켜 준다.

보행을 편안하게 해 주는 동시에 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레구아노코리아는 대리점 모집에 나선다.

?대리점 모집에 있어 스가맹비 제로(0) △판매 지역 보장 △무료교육(6시간) △재고 부담 제로 (상품 강매 없음) △대리점 포기 시 재고 재매입 등을 내걸었다.

현재 모집 지역은 총 38개다.

제주와 수원 각 1개, 전남·전북·경북·대전·충남·충북·광주·울산(각 2개), 대구·부산·경남·인천(각 3개), 경기(수원제외)와 서울은 각각 4개다.

레구아노코리아(법인명 (주)한독 인터네셔널) 오상배 대표는 “가맹비와 재고 부담이 전혀 없이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다”면서

“인테리어 역시 대리점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어 소액 투자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레구아노코리아는 올해 초 독일 레구아노로부터 한국 독점 수입 판매권을 획득했다.

(2020-07-17 뉴스핌)



**PT. DONG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27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Poly Bag (LDPE, HDPE, PP, EVA)
- PE Sheet (plain, embossed)
- PVC Bag
- OPP Bag

- Garbage Bag
- Zipper Bag
- Shopping Bag
- Strapping Band

**Contact**

Marketing Office  
T. (62-21) 440 3926  
F. (62-21) 440 3944

E-mail:  
bhjangjk@indosat.net.id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http://www.dongjung.net)

"Best Poly Bag manufacturer" in Indonesia since 1991

Best Quality  
Fast Delivery

## 수입 의존 ‘신발 접착제’ ...부산서 국산화 나선다

### 2010년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지역기업과 협력... 수출시장 노려

한국신발과학연구원의 제1호 연구소기업이 신발 접착제 국산화에 나선다. 한국신발과학연구원과 동성 접착제는 지난 23일 공동합작회사 ‘(주)아망프티에스에이’ 설립 현판식을 사상구 모라동의 생산시설에서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아망프티에스에이는 연구원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해 만든 첫 연구소기업이다. 연구원은 2010년 특허를 받

은 ‘포화 신발(캔버스화)용 수성 프라이머(접착제) 조성물’ 기술을 본격적으로 사업화할 계획이다. 최근 유행하는 스니커즈 종류인 캔버스화는 접착제로 신발 갑피(겉가죽)와 아웃솔(밑창)을 붙여 증기에 찌서 완성한다. 기존 신발용 접착제는 다국적 기업 헨켈과 대만업체들이 주로 생산해 지금까지 국산 제품이 없었다.

하지만 외국산 제품은 신발 종류별로 다른 접착제를 써야 하고 접착력도 낮아 업계에서는 불만이 높았다. 연구원이 개발한 수성 접착제는 하나의 접착제로 다양한 신발 제품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 NR라텍스 소재에 특별한 처리 과정을 거쳐 안정적인 접착력을 가진 물질을 만들었다. 특히 인체에 해로운 솔벤트(용매)가 아닌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다는 것도 장점이다. 대부분의 접착제가 톨루엔·포름알데히드 같은 발암성 유

해물질을 포함해 작업자의 건강 문제가 제기됐다. 합작회사 설립은 기술을 보유한 기관과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이 손을 맞잡으면서 가능했다. 동성접착제는 지난해 글로벌 신발 브랜드 반스(Vans)의 베트남 생산업체로부터 수성 접착제 공급을 요청받았지만 기술이 없어 실패했다. 이에 연구원이 보유한 특허 기술을 활용해 접착제를 생산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후 해당 기술의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받고 이사회 승인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구소기업으로 승

인받았다. 합작사는 동성접착제가 보유한 핵심기술을 추가한 제품 개발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국산 기술로 개발한 접착제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면서 올해 하반기 베트남 시장을 1차로 공략한다. 내년에는 인도네시아로 마케팅 영역을 넓힐 계획도 세웠다. 국내 신발 기업들도 국산 접착제를 수급해 품질 제고에 나설 전망이다. 연구원 고분자표면연구실 천제한 실장은 “코로나19로 직접 해외 영업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자체 생산한 브랜드 샘플은 이미 현지로 보내 평가를 받고 있다. 현지 착화 테스트를 거쳐 정식 생산되면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

2021

## 카렌다 제작을 시작으로 2021년(辛丑年)을 준비하세요!

# 2021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SILK ROAD**

**광개토에 카렌다 제작을 의뢰하시면**

1. 탁상용, 벽걸이용 카렌다를 고객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2. 약 20만컷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촬영을 원할 경우 출장 촬영 가능합니다.
4. 귀사의 현장과 생산제품, 설비등의 이미지로 차별화된 제작 가능합니다.
5. 제작전 사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 의뢰 : 0858 9060 0962,  
021 3002 9090 / 91  
pt.kwanggaeto@gmail.com**

## 8월 1일부터 ‘한국신발디자인 공모전’

6th Korea Shoes Design Competition

**제6회 2020 한국신발 디자인 공모전**

모집공고 확인 및 작품접수

**www.shoedesign.kr**

**공모 모집개요**

**작품접수 기간: 8월 1일 - 9월 14일**

1. 공모분야: 모든 종류의 신발 디자인, 하이힐, 슬리퍼, 운동화, 아동화, 여성화, 남성화  
 2. 공모대상: 신발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가가능(대학생 제외)  
 3. 출품 수: 수상작만 1인, 1종류씩을 출품가능  
 4. 접수방법: 온라인(크라우드소싱) [www.shoedesign.kr](http://www.shoedesign.kr) 접수  
 5. 1인당 1회만 접수 가능  
 6. 문의처: (주)신발산업진흥원 사업관리팀(이메일: 제2차사업관리@shoenet.org) / Tel: 051-979-1812 / E-mail: naman21@shoenet.org

\* 주최측 사정에 의해 일정은 변동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 참조 바랍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는 한국 신발 디자인 산업 활성화와 신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6회 2020 한국신발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무제한 부문(자유주제) △브랜드 부문(후원기업) △학생화 부문 등 총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학력·연령·성별·국적 등에 상관없이 신발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접수하면 되고, 1명당 출품할 수 있는 작품 수에 제한이 없다. 다수의 작품을 냈을 경우 중복수상도 가능하다. 시상금 대상(상금 300만 원), 금상(상금 200만 원), 은상(상금 150만 원), 동상(상금 100만 원)과 후원기업이 직접 수여하는 브랜드상으로 나뉜다. 수상작들을 전문 신발디자인 크라우드 소싱 홈페이지([www.shoedesign.kr](http://www.shoedesign.kr))에 공개하여 신규 신발 디자이너의 등용문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며 분야별 새로운 디자인의 발굴·제안을 통해 신발디자인의 다양한 가능성을 조명할 계획이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신발산업진흥센터 공식 홈페이지([www.shoenet.org](http://www.shoenet.org))와 전문 신발디자인 크라우드 소싱 홈페이지([www.shoedesign.kr](http://www.shoedesig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일보)

## 2020년 여름 출시될 에어조던 라인업 공개



▲ 에어조던 7



▲ 에어조던 5

나이키가 에어조던 2020 여름 라인업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레트로 디자인부터 신상품까지 살펴봐야 할 제품들이 다양하다. 마이클 조던의 5번째 시그니처 모델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이번에는 1990년부터 출시된 “파이어 레드” OG 컬러와 파이어레드, 메탈릭 및 그레이프가 혼합된 컬러 두 가지로 선을 보일 것이다. 에어조던 팬들이 가장 선호하는 에어조던 디자인 1은 2018년 퍼플 토 컬러다. 게다가, 눈길을 사로잡는 타이 다이 에디션이 여성용 에어조던 1으로 독점 출시됐다.

나이키에 따르면, 또 다른 여성용 스니커즈인 에어조던 4는 희망과 평화, 사랑과 조화를 기리기 위해 디자인 한 것이다. 이 풋웨어는 코트 퍼플과 유니버시티 레드, 파인 그린과 팀 오렌지, 4가지 컬러로 출시돼 있어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다. 전체 라인업 중 가장 거친 디자인 중 하나는 클래식 에어조던 7이다. 그레이 컬러의 인조 털 어퍼에 핑크 컬러로 액센트를 준 이 오리지널 에어조던 7은 두말할 나위 없이 특별한 풋웨어다. 에어조던 11 “콩코드”의 본래 디자인을 토대로 만든 에어조던 11 로우는 여학생들



▲ 에어조던 11 로우



▲ 에어조던 13



▲ 에어조던 4



▲ 에어조던 1

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남성용으로 콩코드와 브레드 컬러를 결합한 풋웨어도 출시돼 있다. 수많은 조던 팬들이 사랑한 에어조던 13 “플린트”가 1998년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돌아왔다. 형광 메쉬로 어퍼를 장식했으며 플린트 그레이로 미드솔과 머드가드, 뒤꿈치를 감쌌고 유니버시티 블루 메쉬가 덧대었다.

##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 350 V2 ‘블랙/레드’, 올해 말 재출시 예정

3년 전, 카니에 웨스트가 디자인한 스니커즈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 350 V2 “블랙/레드”가 처음 출시됐다. 그리고 2020년, 누구나 탐을 내는 이 풋웨어가 다시 한번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 350 V2 “블랙/레드”는 올 12월 전세계에 모든 사이즈로 재입고 될 것이다. 이 신발의 가격은 성인 남성용 기준 220달러로 책정돼 있다.

디자인을 살펴보면, 아디다스에서 유명한 프라임니트 소



▲ 성인용 및 유아용 사이즈로 출시된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 350 V2 “블랙/레드”

풋웨어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다. 한편 6월 16일, 카니에 웨스트와 갭(Gap)은 의류 부문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이지 갭(Yeezy Gap) 라인을 만들어 2021년 갭 온오프라인 매장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갭은 이번 파트너십 체결로 “창의성, 패션 리더십, 글로벌 인지도 및 에너지”를 사용해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바로 이날, 카니에 예스트의 이지 폼 러너(Yeezy Foam Runner) “아라랫” 컬러도 출시됐다. 웨스트가 디자인한 풋웨어 팬들은 이지 폼 러너에 찬사를 보냈다.



▲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 350 V2 “블랙/레드”

재로 블랙 컬러의 어퍼를 만들었고 풀 탭은 레드 스티치로 강조를 했으며 측면부에는 “SPLY-350”이라는 브랜드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플러시 소재로 부스트 미드솔 쿠션을 제작했다. 하지만 아디다스는 아직 이

## 하나 선교 교회

### 생명의 말씀

인생을 살다보면 눈물짓는 밤을 만납니다. 곁에서 위로해 줄 이 아무도 없는 고통의 깊은 밤을 혼자서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어두운 밤을 통과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고 내일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을 통해서 내게 인생의 깊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때마다 주님께서는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인 됴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향을 발하는 아름다운 사람은 어두운 밤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하리라.”

주일예배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수요예배 : 매주수요일 저녁 7시

담임목사 : 김덕수

Karawaci Office Park H-26.  
Tangerang Indonesia  
전화 : 0812 8249 7216,  
E-mail : kds3767@hanmail.com



대한민국 No.1 보일러

## 삼호 보일러

###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석유 / 목재 / 종이 / 석탄



###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특허번호 10-0870543 호

- 콘덴싱 보일러
- 황형수관식 보일러
- 수관식 보일러
- 노통연관식 보일러
- 초소형노통연관식 보일러
- 무압관수식 보일러
- 진공온수 보일러
- 관류형 보일러
- 소용량입형연관식

###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PT. HANSHIN AIR COMPANY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Ruko Tatac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Tel. 021.5949.4000 / 5949.4222 Fax. 021.5949.4666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439 0006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 AUTO PALLET FEEDING SYSTEM

작업자의 PALLET LOAD-UNLOAD 시간 단축에 의한 생산성 증대 효과 기대



■ FLAT TYPE EMBROIDERY MACHINE

고속 CPU를 적용하여 Multi-tasking 기능 및 원격제어 기능을 통한 고품질 제품 생산 가능



■ AUTO BOBBIN CHANGER

자동 보빈 체인저 기능으로 밑실 소진에 의한 불량 발생 차단 가능. 소진된 보빈 자동 교체로 DOWN TIME 최소화



■ 2-NEEDLES PATTERN

한대의 기계에 2개의 바늘대 운용으로 UPPER 2개의 컬러 실 사용 가능. 인원 감소 및 생산성 증대 효과 기대



■ IoT SYSTEM

신발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IoT SYSTEM 구축 (OEE, KPI 등)

# Making \_\_\_\_\_ AUTOMATION FACTORY with SunTech's Smart technology!



**SunTech R&D CENTER 개발 능력**

- 재봉기, 자수기 기구 설계, 구조 해석
- 재봉기, 자수기 캠 설계 및 측정 자동화 시스템 개발
- 패턴 재봉기, 자수기 컨트롤러 (CPU & OP 보드) 개발
- 패턴 재봉기, 자수기 Program 개발
- 현장 맞춤형 IoT System 개발
- 브랜드 합작 신기종 개발



SUNTECH  
밀양 공장 전경



**SUNTECH GLOBAL NETWORK SYSTEM**

**HQ & R&D CENTER & FACTORY**

394-5, Sanoe-ro, Sanoe-myeon, Miryang-si, Gyeongsangnam-do  
TEL +82-55-352-9304

**SUNTECH CHINA FACTORY**

TEL +86-755-8429-5840  
H.P +86-137-1450-7030

**CIKARANG BRANCH**

Ruko Podium Blok A No. 1 & 2 Jl. Mataram, Lippo Cikarang Kel. Cibatu, Kec. Cikarang Selatan, Bekasi  
TEL +62-21-2210-4936~7  
H.P +62-811-911-2248

**HANOI BRANCH**

TEL +84-24-3991-9222  
H.P +84-91-494-8802

**JEPARA BRANCH**

Jl. Jepara-Kudus, Desa Rengging RT.006 RW.001 Pecangaan, Jepara  
TEL +62-21-2210-4936~7  
H.P +62-811-911-2248

**HOCHIMINH BRANCH**

TEL +84-28-6682-8877  
H.P +84-97-932-8610